

일 년간 늦어 죄송합니다.

2015년 12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9일까지 일 년간(메일링 리스트를 통해 대량으로 발송한 건을 제외하고) 용도별로 분류한 다섯 개의 계정으로 보낸 메일은 총 440통이다. 여기서 첨부한 워드 파일, 공유한 클라우드 노트를 제외하고 본문 안의 텍스트를 모았다. 다시 여기서 배치, 선정, 배제, 표기의 원칙을 세운 후 텍스트를 추렸다. 원칙은 다음과 같다.

- 메일 하나당 한 문장을 사용한다.
- 받는 이와 관계없이 시간순으로 배치한다.
- 여러 메일이 하나의 스레드로 엮여 있으면 스레드 안의 순서를 먼저 따른다.
- 한 달을 한 문단으로 나눈다.
- 내용상 핵심이 되는 문장을 고른다.
- 배치했을 때 전, 후의 호응과 리듬을 고려해 고른다.
- 전에 쓴 문장은 고르지 않는다.
-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문장은 가능한 한 고르지 않는다.
- 공식적으로 공개하지 않은 개인정보는 감춘다.
- 틀린 표현과 맞춤법은 수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숨은 원칙 하나를 추가해 아래의 메일을 완성했다. 일 년간 내게 메일을 받은 모든 분께 보낸다. 제목은 440통의 메일에서 ‘감사합니다’를 제외하고 가장 자주 쓴 표현, ‘늦어 죄송합니다’가 적당하겠다.

제가 오늘 외부 업무로 계속 정신이 없었네요. 단순히 공연을 보고 돌아가는 게 아니라 영기획 음악을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 인사 나누고 좋은 술과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자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Send me sense to this address. 예매 확인 메일 다시 보냅니다. 레이블마켓 참가신청서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다음에 리뷰할 제품은 몇가지 후보를 놓고 고민하고 있어요. 12월 11일에 입고한 사람12사람 [feels too letter] 정보 pdf와 메일 본문 내 텍스트로 보냅니다. 어떤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셨던 건가요. 유통사 쪽에 물어봐서 처리할 수 있는지 알아볼게.
말씀 드린 것처럼 기본 색이 별색이라 인쇄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작
과정 때문에 본 커버는 jpg 파일로 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사람12사람
[빛물구름태풍태양(Remixes)] 앨범 커버입니다. 입고는 오늘 오후 중에 직접
상상마당 갤러리에 하겠습니다. 비록 당일날 혼나셨지만 갖고 계시면 어떻게든
쓸 날이 있겠지요. 그리고 추후에 작업하신 애니메이션을 영기획 유튜브 채널에
올려도 될지 여쭙습니다. 현재로서 영기획에서 발매된 음악에 관한 저작권
정책은 비영리의 경우 제지하지 않는다는 것 정도만 있습니다. 사람12사람의
'깜깜한 밤'은 [빛물구름태풍태양] LP에만 들어 있는 보너스 트랙입니다. [feels
too letter]는 오늘 택배로 보냈으니 늦어도 모레에는 도착할 겁니다. 오늘 10장
입고했고 판매 가격은 12,000원입니다.

2016년에도 자주 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5월을 목표로 준비중인데 아직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순 없을 것 같아요. 조만간 방문하고 연락 드리겠습니다.
Check pdf file include this mail. 일반적인 인터뷰와는 다른 포맷인데 앞으로
어떤 절차로 진행하는지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You can download this
album [YOUNG,GIFTED&WACK Selected Wack Works] to below link.
흡연 장면이라 잡지에 실리기 괜찮을지 모르겠네요. 영기획 사이트가 지금
리뉴얼 때문에 잠깐 멈춰 있긴한데 사이트 구조 자체는 리뉴얼 해도 변하지
않을 거라 따로 페이지를 만드는 건 어렵지 않을 듯. 발뮤다 더 토스터 원고
보냅니다. 서울문화재단 예술축제지원 시 누락된 0000000 사업자등록증을
보냅니다. 지난번 설문지에서 작성한 물건들 사진 보냅니다. 저희가 전에
유통하던 타이틀을 포크라노스로 옮기고자 하는데 혹시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재미공작소 공연 관련 페이지 전달합니다. Room306 - Wood
On Fire 커버 보냅니다. 15매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기획 로고 파일과
가이드 보냅니다. 한-불 상호교류의 해 홍보 기초자료 사진과 함께 첨부합니다.
사람12사람의 해외음악페스티벌참가서 공유할 수 있는 내용만 먼저 작성해
보냅니다.

함께 가는 팀들도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래 링크에서
인터랙티브 화면에 어울리는 곡을 다운 받아 쓰시면 될 듯합니다. 데모는 본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신 음원은 저희 레이블의 색과 어울리지 않아
함께 일하기는 어려울 듯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좋은 음악 만들어 주시고
새로운 음악 발매 되면 알려 주세요. 혹시 클라우드 막혀 있으면 다시 연락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모두 무사히 6월에 스페인에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부적격자라는 산문집을 발표한 김일두 씨가 비슷한 포맷으로 공연을 진행하고
있는 듯. 답변 메일 하단에 텍스트로 보냅니다. 우선 제일 마지막 장 처리 좀
부탁드려요. 아무래도 제품의 특성상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 Up/Down 전에
무선 오디오 전송에 관한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영기획 측에서는 아티스트

Flash Flood Darlings, fuckushi oyo(75A), theoria와 관계자를 포함해 총 10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영기획은 본래 미디어의 기능을 함께 했으나 현재는 리소스 부족으로 레이블 운영 및 아티스트 매니지먼트에 업무만 하고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본 메일로 레코딩비를 입금할 통장계좌를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레코딩비 입금하겠습니다. 3월 6일 Room306 <At Doors> 발매 기념 쇼케이스 공연 정보 보내고 포스터 첨부합니다. 3월 6일 발매되는 Room306의 <at Doors>의 추천사를 부탁드립니다 음원을 보냅니다. Room306의 소중한 첫 순간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장소는 촬영 스튜디오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면 홍대 상수-합정 부근이 좋을 듯하고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로 구성된 날이자 시간이네요. 전에 연락 드리려고 했는데 공연 끝나고 정신이 없어 답신 드리는 걸 깜박하다 메일함 정리 중 본 메일을 발견했습니다. 일단 저희 헤드 디자이너는 장우석(sf)으로 아이덴티티를 비롯해 메인이 되는 디자인을 하고 있습니다.

트랩폴린과 룸306이 밴드셋이라 리허설 시간이 좀 길어 조금 일찍 리허설을 시작해야 할 것 같아요. (마감이 너무 늦어 그럴만한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수정할 내용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통장과 신분증 사본 보냅니다. Room306 <at Doors> 콘텐츠 기획 전달합니다. [at Doors]는 두 장으로 구성된 음반으로 CD2는 6번과 8번 트랙만 서비스할 예정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는 아직 인터뷰를 편집 중인데 오전 중으로는 완성할 수 있을 듯합니다. 채팅 화면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알 수가 없어서... 일단 에버노트 페이지 공유합니다. 지니 뮤직 콘텐츠 doc 파일로 다시 보냅니다! 지니 뮤직 콘텐츠 사진 들어갈 자리 추가해서 다시 보냅니다! this is bio in korean. Room306 예매자/게스트 리스트 및 앨범 판매 양식 첨부 파일(pdf)로 보냅니다. 입고가는 12,000원입니다. Alternative Technical Rider #2 - Sound & Installation. 오디오 연결은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의 오디오카드에서 55 라인으로 스테레오 출력되는 게 전부입니다. 테크라이더와 프로필 사진은 파일로 첨부합니다. 라팔룩스 소개글 보냅니다. 가민 페닉스 3 리뷰 보냅니다. 수정한 내용 보냅니다. Room306 [at Doors] 디자인 파일과 크레딧 보냅니다. 요청하신 향음악사에 관한 글 보냅니다. :===) 하지만 실제 음원을 사용할 때는 아래의 마스터 원본 파일을 쓰는 게 좋겠지. 최종 완성본을 따로 만드는 거라면 음악 편집을 좀 다르게 할 순 없는지. 볼륨 레벨 따로 오토메이션 안 하고 후반부 영상 레벨에 맞춘 것 같은데 스피커에서도 깨지는 소리가 적잖이 거슬리는게 극장 환경에서는 더 심할 듯. 보내주신 메일을 보니 전시 오픈 전 전시 작품 일부를 선정하고 설명을 듣는 과정이 있는 듯한데요.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보냅니다. 선물 사오는 거 잊지 말고, 우선 사람12사람이 갑작스런 사정으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 관련된 이벤트는 모두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런저런 일들 끝에 힘겹게 뮤직스프레이 측으로부터 음원 이관에 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저희 쪽에서 당장 같이 할 일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꼼꼼히 살펴보고 같이 할 일을 찾아 보겠습니다. 만약 제가

자율적으로 주제를 선정해 진행해도 되는 거라면 그렇게 하기로 하겠으나 그게 아니라면 그에 관한 내용을 전달해 주시면 검토후 회신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우선 강연연사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발매 앨범은 섣다운 후 다시 발매하는 형태로 진행할 예정이니 현재 서비스 중인 음원 모두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이관할 유통사 관련 정보 전합니다. 뮤직스프레이 측 연락처 전합니다. 곡의 무드와는 포워드의 'Kotin', Room306의 'Tomorrow', 75A의 'taipei', GRAYE의 'Empty Space' 등이 어울릴 듯하네요. 네 번째 암페어를 우정국과 함께 논의할 수 있어 기쁩니다. 우선 위의 정확한 내용과 이현준 작가님이 쓰셨다는 작업노트를 먼저 보고 싶네요.

작업노트를 받기 전 제가 과연 이 작업을 할 수 있는지 좀 걱정이었는데요. 원고 보냅니다. 수정본 다시 보냅니다. Room306 사진, 프로필, 테크라이더 보냅니다. 아직 최종본이 아닌 탓도 있겠지만... 혹시 괜찮다면 우리 측에서 편집된 영상에 맞게 음악을 편집해도 될까요. 룸306 소개와 곡 소개 보냅니다. 첫 버전은 오리지널 버전 두 번째 버전은 음성이 나오는 장면에 맞춰 사이드체인을 걸어 놓은 버전입니다. 예고편은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채널에 올라올 때 알려주시면 저희 채널에서도 공유하겠습니다. 그쪽에서 이런 요청이 들어왔는데 수정 괜찮? 동봉된 가죽 파우치가 좋았다는 말이라도 쓸까 하다가 되려 제품을 기만하는 것 같아 쓰지 않았습니다. <2015 음악산업 디렉토리 북>을 신청합니다. 코멘트는 아티스트 코멘트가 아니라 제 코멘트를 따는 건가요? 비트는 시퀀싱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톤과 킨타이즈를 좀 더 다듬으면 좋을 듯합니다. 장-알랭 코르 - 에피소드 11. 메트로 본디지 클럽 / arca - xen [xen]. 괜찮으니 쓰세요. 제 계좌 번호는 국민은행 - 479001-01-151087 입니다. 수정 또는 보완해야 할 내용이나 저작권 이슈가 생기면 연락 주세요. 곡을 편집하지 않고 그냥 쪽 이어도 길이상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전버전보다 훨씬 좋네요. 메인 예고편은 현재 네이버와 페이스북에 공개된 버전 말씀이신가요? 이탈리아의 재즈 플레이어 Cristiano Crisci의 프로젝트인 Clap! Clap!의 곡 "Ashiko"는 Jzimpo Mima 산에서 내려온 거대한 코끼리의 이름이다. 요청하신 편곡 승인서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퍼스트 에이드(허민)의 신분확인서(신분증) 전달합니다. 작곡에 참여한 홍효진의 신분확인서도 같이 보냅니다. 단편선과 선원들 인터뷰 정리한 것 첨부파일로 보냅니다. 그 외 페이지에 적히지 않은 내용으로 본 공연은 출연진들께 맥주를 무료로 제공합니다. 단편선과 선원들 사진과 로고 자료 포워딩합니다. 다시 포워딩합니다. 5월 15일 골목바이닐엔팸에서 열리는 골목, Vinyl & Wack Day(단편선과 선원들, Room306) 공연 정보 보냅니다. 스탠딩을 포함시키면 60명까지 가능할 듯합니다. 최저가 최고가는 전과 동일한 거죠? 골목 현장 사진 촬영 가능합니다. 일단 사진 먼저 보내고 플플달이 연락 줄테니 얘기 듣고 기사 작성하면 될 듯.

OO을 이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면서 티켓가격과 수량에 약간의 변동이

생겼습니다. 영기획 이벤트 당첨자라 말하고 이름을 댄 후 입장하시면 된다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방금 18,000원 환불 처리 해드렸습니다. 여름을 시작하는 일요일 낮에 뵙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예매 신청하신 시기와 입금하신 시기를 대조해 예약자 “김O”님이 입금자 “김OO”님과 일치한다고 여겨 문자와 메일을 보냈습니다. 일렉트로닉 댄스 뮤직에 좋은 시선을 가진 분이라 책 판매에도 도움이 될 듯합니다. 별 건 아니고 저희 쪽 아티스트 중 필요한 이들에게 선물을 하고 싶어서요. 이번 암페어 때부터는 쇼케이스 아티스트가 부스를 함께 운영하는 쪽으로 정책이 바뀌어 판매할 음반이나 콘텐츠가 없는 경우에는 참가하기 어렵습니다. 추후 발매는 어떤 형태로 하고 곡의 권리 분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알면 좋겠네요. bpm 133이며 멜로디는 임시로 처 놓은 거라 요청하면 다시 짜거나 직접 작곡가를 붙이셔도 된다고 하네요. 무사히 예매 처리 되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일 중으로 환불 및 취소 처리 해드리겠습니다. 운명처럼 메일을 주신 이후 취소표가 생겼습니다. 공연비는 해당 계좌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작자인 제 입장으로는 뮤직비디오가 하나라도 더 생기면 좋은 일이지만 아티스트와 아트 디렉터의 의견을 무시하고 진행할 순 없으니까요. LG 롤리키보드 2 리뷰 보냅니다. 암페어는 직접 참가하는 아티스트와 부스가 없으면 이뤄질 수 없는 이벤트입니다. 가능하면 오늘 중으로 늦어도 내일 오전까지는 꼭 보내겠습니다. <http://bit.ly/room306share> <댄스 뮤직 매뉴얼> 추천사 보냅니다. 제가 나온 제대로 된 사진이 없어 그냥 페스티벌 때 찍었던 사진을 몇 장 보냅니다. 검토 결과 추구하시는 사업 모델이 현재 저희 사업 방향과는 맞지 않는 듯합니다. 좋은 서비스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암페어는 아직 보도자료 배포를 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다음 주 수요일 이후 정도면 방전된 체력을 보충하고 인터뷰를 준비할 수 있을 듯합니다. 6월 8일 3시 압구정역 스타벅스에서 뵙겠습니다.

지난번에 구두로 말씀 드렸던 [Var] 앨범 커버와 리덤 코드 전달합니다. 따로 프레스 명찰은 없으며 입구에서 성함을 대고 출입 도장을 받고 쇼케이스 무대에 입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 상황에서 체크해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내용 플레이어는 거창하게 플레이어라 할만한 건 아니고 (즉 디자인이 들어가진 않고) 그냥 타임테이블만 정리해 곳곳에 붙여 놓을 예정입니다. 도착한 현수막은 우정국에 설치 되었는지 혹시 되었다면 찍어두신 사진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함께 여쭙습니다. 본 메일로 말씀 드리는 우정국 사전 답사는 행사 전날인 금요일에도 가능합니다. 죄송하지만 제4회 암페어는 따로 리허설과 사운드체크 시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본래 부스의 사이즈는 1m x 1m 입니다만... 실제 그 사이즈의 테이블이 없어 큰 테이블을 옆 부스와 나눠 쓰게 됩니다. 후 내일까지 꼭 알려드릴게요!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 공연은 영기획에서 어렌지하니 향후 전달할 사항 있으면 이쪽으로 알려 주세요. 디자이너가 정식으로 작업한 게 아니라 (네.. 제가 인터넷 글리치 툴을 이용해 작업을..) 출력에 적합할지 모르겠네요. 제 생각엔 10% 할인 되는 인터넷 판매가

보다 저렴하게 (3만원 정도가 저항선이지 않을까 싶어요) 선착순으로 5-10권 정도 판매하면 수익이 크진 않더라도 나름 홍보효과는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정국 거어리스트 보냅니다. 공연하는 팀 중 서브 우파를 쓰고 싶다는 팀이 있어서요. 여기서 현 스태프 구성으로 시뮬레이션을 돌리다 보니 약간 문제를 발견했는데요. 사진 및 로고는 다음 링크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라이브 악기와 보컬이 들어가는 팀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믹스가 된 음악이기 때문에 엔지니어쪽에서는 기본적으로는 EQ를 flat에 두었다가 공간에서 일어나는 공명과 하울링만 진정시키는 용도로 최소한만 사용하게 됩니다. 쇼케이스 하는 분들은 부스를 찾을 수 있도록 멋진 공연과 유도 부탁드립니다. 부스로 참가하는 분들은 SNS를 통해 홍보 부탁드립니다. Back To The House는 부스의 특성상 실내에 있어야 해 본래 영기획이 쓰려고 했던 부스를 드렸고 라즈모드는 맞은 편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결국 보낸다고 했던 최종 안내문은 그냥 카톡으로 이야기해야 할 것 같고 그냥 내일 프린트할 문서나 보냅니다. 크게 바뀐 건 없고 실제로 테스트 하니 충분히 공간 확보가 될 것 같아 테이블 교체를 빙 둘러 하지 않고 바로 로테이션할 예정입니다. <https://www.dropbox.com/s/imv7qnwx7ajot0/%EC%95%94%ED%8E%98%EC%96%B4%20%ED%83%80%EC%9E%84%ED%85%8C%EC%9D%B4%EB%B8%94.pdf?dl=0> 데모는 contact@younggiftedwack.com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4회 암페어 사진 보냅니다. 덕분에 좋은 음악가를 많이 발견했네요. 주신 내용대로 내일부터 이벤트 진행하겠습니다. 행사를 준비하는 데 있어 제 쪽에서 미흡하고 모자랐던 점에 관해서는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낮에 자고 밤에 깨어 있는 댄스 뮤직 프로듀서들의 성향 상 밤부터 참여가 활발할 듯 싶네요. 언제까지 인터뷰를 정리해 드리면 좋은지 말씀해 주시면 그때까지 맞춰 보내드릴게요. 늘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기사로 남겨 주셔서 감사합니다. RIP EDM 백 15,000원. 원고가 실린 잡지를 다음 주소로 변경해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제가 방해한 듯 싶지만) 이번 마감도 무사히 마치시길. 이를 위해 그리고 이후 정리해서 발매할 암페어 진을 위해 다음 설문조사에 응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Room306의 셋리스트와 음원 보냅니다. 다음은 댄스 음악이 아닌 대중 음악 프로듀서 지망생이 있는 커뮤니티를 공략해 보심은 어떨까요. 사실 보내주신 곡이 너무 좋아 다른 발매하신 음원도 찾아 듣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들려줬어요. 수요일 오후 4시 홍대 앞 한잔의 톨루랄라 괜찮으신가요? <댄스 뮤직 바이블> 증정 이벤트 당첨자 명단 전합니다. 테크니컬 라이더는 너비 1.2m 이상의 테이블, 오디오 카드의 출력을 받을 55(TRS) 스테레오 케이블, 다이내믹 마이크, 마이크 케이블 이렇게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장비에 들어가는 잭은 55(TRS)잭입니다. 혹시 몰라 통장과 신분증 사본을 함께 첨부 합니다. 인터뷰는 전반부는 전시 작품에 관해 후반부는 이현준 작가의 전반적인 작품 세계에 관해 다루고 있어요. 판매가는 15,000원에서 18,000원을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가 좋을지 의견도 함께 주시면 좋고요. 판매금액은 말씀해주신 금액에서 딱 1,000원만 추가해 17,000원으로 책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거라 어떻게 될

지 잘 모르겠지만 그저 재밌게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 공연 관련 자료 보냅니다. 요청하신 서류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 (송재만) 으로 수정해 다시 보냅니다. 대신 마감 기한이 좀 촉박한 듯한데 혹시 조금 더 시간을 주실 수 있는지 여쭙습니다. 수정하거나 보강할 내용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요청하신 내용을 반영한 것도 있고 전체 내용과 조화롭지 않아 부득이하게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는데요. 플라이어를 제작하다 s를 넣기 애매해서 최종 제목은 <팝업-프렌드; 하박국의 하소연>이 되었습니다. 해외 인터뷰를 살펴 보니 WIWEK의 답변이 짧은 편이라 이 질문만으로 원고지 8매 정도 분량이 나올 수 있을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책 발간 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돕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잘 부탁드립니다. 들고 가는 게 많은 편은 아니라 부스 셋업은 당일애 할 예정이고 상황에 따라 전 날 미리 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Ur Silhouette]은 전의 유통사에 문제가 있어 지금 유통사로 이전하고 있고 전의 유통사와의 정산이 아직 확실하게 끝난 게 아니라, 요것도 정리되면 얘기해줄게. 네가 전에 리믹스해보고 싶다고 하길래 스템 받았으니 들어 보고 할 수 있으면 해보렴. 다시 보냈으니 확인해보세요. 너무 오래전의 가사라 최근 것 중 괜찮은 게 없나 계속 찾았는데 결국 실패하고 제가 전부터 가장 좋아했던 가사에 관해 글을 썼어요. 인터뷰 답변을 보니 서면 인터뷰보다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눴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아 많이 아쉽네요. 위키 인터뷰 수정 버전 보냅니다. HP Spectre 13 리뷰 보냅니다. 신분증과 통장 사본 보냅니다. 현대카드 바이닐 & 플라스틱 원고 보냅니다. 그 외로는 이진 암페어도 늘 고민하는 건데 행사 전-후로 참여하는 분들끼리 서로 인사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스터와 리플렛은 서울시 서대문구 00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혹시 이 메일을 보고 커널스트립이 기분이 좋아 음반을 빨리 작업할지도 모르니 CC로 커널스트립에게 본 리플을 함께 전달하겠습니다. 통장/신분증 사본 보냅니다. 통장 신분증 사본 보냅니다. 테크라이더는 장비를 올려 놓을 테이블과 장비와 연결할 55 케이블(TRS) 그리고 마이크 스탠드만 있으면 됩니다. 요청하신 문서 작성해 보냅니다. 다운로드 비밀번호는 UE8YGW 모두 대문자입니다. 저희는 작은 규모의 레코드 레이블이자 매니지먼트사로 명확한 일만 하기에다 벽차기에 '함께 할 수 있는 방법'과 같은 막연한 제안에 응할 만큼의 리소스가 없습니다.

라인업에 오프닝 게스트로 F.W.D.가 추가 됐습니다. 곧 (제가 받을) 선물과 함께 봐요. 이 경우는 네가 오리지널 아티스트인데 저작권료 외에 (우리 측에서 발매하는 거라면 분배될) 저작인접권료 분배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그 부분에 관해 문의를 한 상태. 특별히 일렉트로닉 셋이 있진 않으나 프로듀서 퍼스트 에이드가 라이브에 참여, 신스와 FX로 사운드의 결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와 플플달이 함께 입장할지 따로 할지는 결정되지 않았으니 입구에 미리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런티는 디제잉의 경우 000, 라이브셋일

경우 000입니다. 요청하신 Room306 자료 보냅니다. Room306의 제작과 매니지먼트를 맡고 있는 영기획YOUNG,GIFTED&WACK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보냅니다. 하시는 밴드의 음악을 함께 하기에 저희보다 잘 어울릴 레이블이 있을 거로 생각합니다. 수정된 포스터 공유합니다. A2B Obree Cruise 리뷰 보냅니다. 그렇다고 1) 안을 하기엔 제가 최근에 외출을 잘 하지 않아 현재 시점에서 4-6회나 끌고 갈 만한 소재가 없습니다. 요청하신 애플 뮤직에 관한 칼럼 보냅니다. EBS 스페이스 공감 영기획 출연 후보 팀 보냅니다. belief 개작 동의서 보냅니다. Room306스케줄 및 멤버 스케줄로 9월 30일과 10월 1일은 잔다리 페스타 참여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신분증 사본과 통장 사본 파일로 첨부합니다. 쿼어영화제에서 온 메일 포워딩합니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요청주시면 가능한 빨리 정리해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때 뵙고 당일 콘셉트와 진행에 관한 이야기 나뉘요. 이번엔 메일 도착하자마자 다운 받았습니. 그리고 Room306이 뮤지스팡스 작업실에서 합주하는 모습으로 티저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대강 생각하고 있는 최저 예산은 있는데 아이디어를 내는데 방해될 듯해 아직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주부터 일정이 풀이라 그전까지 정용이 생각하는 아이디어를 구체화시켜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특별히 악기를 더 추가하거나 기타를 새로 녹음하지 않고 믹스나 마스터링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을 듯 하고요. 저희 측 영상 감독에게 따로 비디오 작업할 곡을 지정하지 않고 보내주신 곡을 모두 공유한 후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았습니. 보안 얘기가 나온 김에 지금까지 골든두들이 공유한 자료의 공유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UE8에서 영기획YOUNG,GIFTED&WACK 부스에 참가하는 이 중 1983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의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파일로 보냅니다. 저희 디자이너가 RGB로 작업한 png파일과 CMYK로 작업한 jpg 파일을 작업해 보내줬는데요. 혹시 모르니 USB에 따로 파일 담아 가겠습니다. 입장 방식과 이벤트 도중에 닥칠 허기 그 외 서로가 협조하면 좋을 부분 등에 관해 논의하면 좋겠습니다. 뮤지스프레이 이관 해외 앨범 메타데이터 보냅니다. 예를 들어 CDJ의 경우 USB 삽입이 가능한 모델인지 알아야 미리 그에 맞춰 준비할 수 있을 듯해요. 프로필 촬영은 조명 문제, 시간 부족, 매장 영업에 폐가 될 것 같음 등의 이유로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혹시 75A, 암페어 진 등에 본 서체를 사용할 계획이 있다면 쓰시면 될 듯합니다.

다른 팀의 공연 시각 변경을 요청하게 된 상황 설명 먼저 드립니다. 회사 이름은 그럴만한 사정이 있었는지 생각해 주시길... 회사 이름에 신경 쓰느라 중요한 걸 안 보냈네요. Flash Flood Darlings [Vorab and Tesoro] 앨범 커버 보냅니다. 늘 꼼꼼한 정산에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늦었네요. 우편물 보내실 주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출연자용 테크라이더는 탭 별로 아티스트가 지정되어있습니다. 아직 작업되지 않은 데모, 라이브 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구는 “YOUNG, GIFTED & WACK”이나 “수집하고 기록하는 사람” 중 하나를 골라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박국이 본명이 아니라 그런 듯하네요. 선금금

상계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앨범은 상계에 포함되지 않는 앨범 모두입니다. 다만 이번 경우 시놉시스 단계에서부터 낭독이 필요하다는 아티스트 측의 판단으로 시놉시스 단계에서부터 낭독 파일을 보냅니다. 갑자기 일이 몰려 정신 없이 하다 보니 벌써 9월 8일이네요. 앨범 디자인에 관해 주변에서 받은 피드백과 제 의견 함께 전합니다. 송구스럽지만 제가 어떤 피드백을 드리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몇 가지 버전의 글을 쓰다 말았는데 현재 제 입장을 잘 드러내는 글은 이 글인 듯해 완성해 보냅니다. 홍보는 월요일부터 밴드와 영기획 채널을 통해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링크에서 다시 다운로드 부탁드립니다. 한 장씩 발행해달라 하신 걸 나중에 보고 처음 두 달을 함께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다시 발행했습니다. eps 파일로 쓰임새에 맞게 분류되어 있으니 필요한 걸 쓰시면 됩니다. ONKYO H900M 리뷰 보냅니다. 영상 인터뷰를 할 합주 시간은 아직 정하는 중입니다. Room306 APaMM 공연 큐시트 보냅니다. 전에 말씀드린 원더걸스 원고 보냅니다. 영기획 레이블 특집이기도 하니 공연의 전반적인 톤과 크게 벗어나지 않을 선에서 영기획에서 발매된 음원을 모아 보냅니다. 슬슬 뮤직비디오 어떻게 해야 할지 얘기해야 할 듯? EBS 스페이스 공감 영기획 공연 초대관객 리스트 보냅니다. 보통 평론이란 완성이 된 앨범에 하는 것인데 완성이 되기 전, 완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평론을 요청 드리는 거라 어쩔지 모르겠습니다. Sima Kim 앨범 메타데이터, 음원, 커버 보냅니다. 영기획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보냅니다. 시마 킴의 앨범 <You Won't Find My Punchlines Here>, <IT'S A DREAM, TAKE CONTROL> 보도자료 먼저 보냅니다. 첨부 파일 다시 보냅니다. <Dorothy> 앨범 보도자료 보냅니다. Sima Kim <Debris> 앨범 보도자료 보냅니다.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유통사에 확인해 보니 이메일 상으로만 회신을 받아도 증빙이 된다고 해 유선으로 말씀 드린 내용을 다시 보냅니다. 좋은 일로 보면 좋았을 텐데 번거롭게 해드리는 일로 봐어 송구스럽네요. (동시에 누르는 손)(절하는 남자)(동시에 누르는 손) 죄송하지만 그때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가 한국에 없어서요. OOO PD님께서 각 팀마다 꼭 빼야 할 곡 한 곡씩 알려달라고 하셔서 전합니다. 아티스트와 논의 중 강혁 씨의 사진을 쓰면 좋을 것 같아 의사를 묻고자 메일 드립니다. 투명 주얼 케이스라면 강혁 씨의 사진 위에 강혁 씨의 사진이 찍워진 시디가 다시 올라 가겠죠. 아이템 선정을 위해 제가 평소 장소 체크인 하는 앱을 이용해 그간 어딜 가장 많이 다녔는지 봤는데 이미 그 곳은 다른 분의 리스트에 있네요. 요청하신 맥주 관련 원고 보냅니다. 그리고 제 본명은 OOO입니다. 해외 공연개최 지원 사업 공문 보냅니다. 다시 보냅니다. 우선 (1)이 나와야 (2)의 목표를 얼마로 하고 들어갈 내용을 정리해 우석 씨에게 다시 디자인을 요청할 수 있을 듯합니다. Room306 곡 중 가장 밝은 'Seems Like(갈아요)'의 음원을 보냅니다. 요런 걸 하려고 하는데 어떡신지 검토 바랍니다. 바로 참가 신청한다 답변 드리고 싶지만 아직 10월 일정이 불분명해서요.

죄송하지만 10월 24일까지 플래시 플러드 달링스가 한국에 없어 공연이

어렵습니다. 온라인 기획전 론칭 안내 공유합니다. 저희가 공연 콘셉트에 맞춰 준비해야 할 것, 또는 OO 씨가 생각하는 공연의 그림을 말씀해 주시면 도움이 될 듯하고요. 좋은 공연 할 수 있도록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받은 더빙 파일 전달합니다. 인터뷰 제안 감사합니다. 정확히는 새 사무실을 구하기 위해 제가 전에 사무실 겸 집으로 사용하던 공간이 나가지 않아 보광동에 방치되어 있고 (매우 지저분합니다) 평소 일을 하는 집은 개인 공간이고 일을 하는 공간이 명확하지 않아 인터뷰의 성격에는 적합하지 않을 듯합니다.

네, 그때 뵙겠습니다! 전에 텀블벅을 통해 편딩한 건 있는데 혹시 그거라도 필요하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후 만들어진 자료가 있긴 하지만 아직 외부에는 공개하지 않는 걸로 작업자들과 얘기가 되어 따로 보내드리기 곤란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https://tumblrbug.com/dcaptxgajeong> 리워드 받을 곳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락처는 010 이름은 000 입니다. 사진은 룸306의 경우 멤버 교체 후에는 따로 찍은 게 없어 퍼스트 에이드와 홍효진 둘만 있는 사진을 전합니다. 75A 사진 몇 장을 기적적으로 발굴해 보냅니다. 모든 곡의 설명의 돈을 통일할까 하다가 각 아티스트의 성격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좋을 것 같아 맞춤법 틀린 것만 고치고 그대로 보냅니다. 전에 말씀드렸던 가사 보냅니다. 새 멘트 더빙 전달합니다. 요청하신 트와이스와 레드벨벳 원고 보냅니다. 당장 내일 돌려드리고 싶지 않을 만큼 좋은 제품이라 어쩔 수 없었습니다. 냉정한 검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혹시라도 믹스 하다 도움이 필요하면 퍼스트 에이드에게 봐달라고 요청해 놓겠습니다. 믹스 밸런스가 계속 아쉬운 감이 있어 대프로듀서 퍼스트 에이드 님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내일 미팅을 앞두고 골든두들 <라운드 로빈> 기획안을 공유합니다. 우선 어제 진행한 미팅 내용을 다시 공유합니다. 네이버 대용량 파일 첨부니 확인을. 답신이 늦어 죄송합니다. 본문에도 있지만 피아노 사용 및 VJ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현장에서 꼭 대본대로 말할 필요가 없다면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없을 듯합니다. 퍼스트 에이드로 부터 받은 믹싱 피드백 전합니다. 프로젝트 진행 방법에 대해서는 다른 경로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존에 했던 작업이 너무 많이 재창작의 영역으로 가게 되는 거 아닌가 싶어 걱정됩니다. 일단 서로의 의견을 확인했으니 듣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골든두들의 작업과 잘 어울릴 것 같아 아티스트 측과 함께 제품을 제작할 소시민워크 측에 공유하고 우리 모두가 소영 씨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한다는 사실을 확인했어요. 두 그룹에게 소영 씨의 작업을 모두 보냈고 그에 따른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지 구성은 아티스트와 상의 후 가능한 빨리 결정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무대 구성은 알려주신 것 중 두 번째 안- 일반적인 무대를 사용하겠습니다. 몇가지 궁금한 부분이 있긴 한데 우선 보내주실 정식 기획안을 보고 궁금증이 남아 있으면 문의드리겠습니다. 저와 소시민워크 모두 본 작업에서 아티스트의 의도를 존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해 골든두들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믹스가 되더라도 러닝타임이나 구성이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전녹음 해 보내드리는 건 가능하다고 하네요. 다음에라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기획의 영문 표기는 대문자, 골든두들의 영문 표기는
 소문자입니다.) 일정이 촉박해 많이 송구스럽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영문 표기가 불가능하다면 영기획으로만 표기 되어도
 무방합니다. 75A 로고 디자이너에게 받아 전달합니다. 최종음원은 받는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일 발표는 키노트로 할 예정입니다. 답변을 다 적고 나니
 큰 도움이 되지 못한 듯해 송구스럽네요. 작업하기 전 제대로 설명 드리지 못하고
 커뮤니케이션하지 못한 제 책임이 큼니다. 혹시나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알려 주시고 만약 있다면 걸리는 시간이 어느정도인지 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논의해야 할 듯합니다. 골든두들 측에도 (본 메일의 참조를 통해)
 전하겠습니다. 소시민워크 측에서 받은 <라운드로빈> 페이지 시안 공유합니다.
 촉박한 일정으로 뮤직비디오 용으로 따로 믹스/마스터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어
 바로 파일을 전달드립니다. 크레딧은 Fukushi Oyo을 그냥 OYO로 수정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지는 아직 만들어진 공간이 아니라 도면도를 보냅니다. 다양한
 창작자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니 아직 해당 프로젝트의 콘텐츠 정리,
 디자인, 리워드 책정이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참고가 될까 싶어 체크할 때
 사용한 pdf 파일을 함께 보냅니다. 강혁 씨에게 받은 사진 전달합니다. 필립스
 세코 그란바리스토 아반티 리뷰 보냅니다. 엽서 뒷면에 들어갈 내용과 날개에
 들어갈 레이블, 아티스트 소개 우선 작성해 보냅니다. 앓, 우선 에버노트 링크만
 다시 전달합니다. 소시민워크에게는 따로 다운로드코드 1000개를 생성해
 보냈습니다. 골든두들 다운로드 코드 100개 csv 파일 첨부로 보냅니다. 제가
 잠을 못 잤더니 정신이... 100개가 아니라 1,000개입니다. 전에 OO 씨에게
 답변 받은 내용 그대로 공유합니다. 모두 쓰셔도 괜찮습니다. 저도 굳이 견적의
 문제가 아니라 책의 물성에는 B안이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라운드로빈>
 추가 다운로드 코드 보냅니다. 언리미티드 에디션에서 처음 판매하는 제품이 총
 두 가지라 요청하신 것 외에 나머지 하나의 이미지도 함께 보냅니다. 요청하신
 이미지 추려서 보냅니다. 방금 주최측에서 받은 사진 전달합니다. 요청하신
 사업자등록증과 통장사본 보냅니다. 투명 주얼 케이스에 사진 위주로 디자인
 하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답을 드리는 게 예의겠으나 마침 현재 제가 제 능력에
 감당하기 어려운 원고를 덜컥 수락 후 이를 마감하며 크게 후회 중이라 우선
 마감을 끝낸 후 찬찬히 기획안을 살피고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인지 검토가
 필요할 듯합니다. 낭독을 4개로 나누고 전체 낭독과 노래 파일을 또 만드게
 최선의 방식인 지는 좀 더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 음원 파일 이미지로 쓰기
 위해, 보내주신 그림 중에서 저희가 선택하여 정방향으로 크롭하거나 캔버스
 사이즈를 늘려 사용해도 좋을까요? 하나는 메신저로 말씀드렸던 앨범 커버
 누락 건입니다. 커버는 도착하는 대로 바로 보내겠습니다. 서명한 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 보냅니다. 이벤트 직전이라 바쁘실텐데 이런 사소한 일로
 문의를 드려 송구스럽습니다. 영기획은 기기의 문제로 카드결제를 지원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실제 종이 계약서에 계약하는 프로세스는 편한 대로 처리

또는 요청해주시면 됩니다. 커버 사진은 방금 업로드했는데 별 문제 없었고 보너스로 추가 가능한 이미지의 총 용량은 300MB. 위탁 판매 전 양해 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저희가 0.5개 부스 (60cm x 60cm)를 쓰다보니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많지가 않아요. 방금 도착한 Room306 [at Doors(Remixes)] 커버 보냅니다. 언제까지 몇 부를 보내드려야 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검토 후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네, 마감 일정 알려주시면 디자이너에게 요청하겠습니다. 어떻게든 오늘 중으로 받아 전달 드리겠습니다. 스티커 용으로 제작한 75A 디자인 파일 보냅니다. 올해 가기 전에 얼굴 한 번 빼요. 언리미티드 에디션은 금/토/일 중 편하신 때를 먼저 말씀해 주시면 우선적으로 소영 씨에게 팔찌를 분배해 드리려고 하니 말씀해 주세요. 메일은 contact@younggiftedwack.com 으로 끊어주면 되고. 그리고 한글 영문 표기에 관해 정책을 세워야 할 것 같은데 일단 아티스트 곡명은 병행 표기 했고 낭독은 어떻게 할지 고민중. 로케이션 장소가 적합하고 스케줄이 맞으면 그때 정용이 합류해 앨범 티저 비디오를 함께 찍었으면 합니다. 발매일이 얼마 안 남아 가능하면 다음주 촬영하면 좋겠고요. 우선 주제는 주신 것을 바탕으로 고민하고 변경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다시 연락 드리겠습니다. 원고가 늦어 그럴만한 여유가 없겠지만 혹시라도 편집 과정에서 요청하실 일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세요. 미흡함이 많은 글인데 좋은 글이라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책 잘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75A 음원다운로드 링크 보내. 아울러 앞으로의 계획을 논의하기 위해 다같이 모여 식사라도 한 번 하고 싶다고도 하네요.

텀블벅에서 받은 후원자리스트 중 발송 의뢰드리는 인원만 정리해 보냅니다. 1,000원짜리 지폐와 함께 찍었으니 참고 하세요. 따로 포맷을 전달받은 게 없어 기재된 페이지를 참고해 곡 리스트는 엑셀로 원고는 DOC 파일로 정리해 보냅니다. 포워딩으로 다시 보냅니다. 12월 23일 영기획&서브비트 합동 공연&파티 기획안 전달합니다. 영기획에서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게 많지만 일단 간략하게 공연의 개요에 관해 적었습니다. 음원은 낭독과 곡으로 구성되어 있고 낭독은 4개로 분할된 파일과 처음부터 끝까지 낭독 후 곡이 나오는 전체 파일로 나뉘져 있음. 얼굴 보고 근황을 확인하기 전에 미리 일에 관한 내용 전달 드리려고 메일 드립니다. 급한 요청 빨리 처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글 보내기 전에 주제 먼저 보냅니다. 창동은 아직 입금되지 않은 줄 알았는데 방금 확인해 보니 12월 2일에 입금됐네요. 트랙리스트 및 설명은 에버노트, 트랙 다운로드는 드롭박스 공유 링크로. 확인해 보니 Pause Cuts의 'Farewell'이 Jinbo가 피쳐링하기 전의 버전으로 올라가 있어 삭제하고 새 버전으로 업로드 했으니 확인 해보렴. <라운드로빈> 출판기념회 포스터 보내! 따로 워드 파일은 첨부하지 않고 하단에 옮깁니다.

—하박국 드림